

## 휴대가 간편한 열화상 카메라 출시

# 플리어시스템 코리아 TG165

각종 전자·전기제품의 사용이 많은 산업현장에서 온도변화는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접지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평소보다 온도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는 온도변화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열화상 카메라 제작업체인 플리어시스템 코리아는 휴대성이 가미된 소형 디자인의 적외선 영상 온도계 TG165를 출시했다. 참고로 플리어시스템은 인간의 감각 및 인지 능력을 크게 확장시켜 주는 각종 센서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판매에서 세계 선두의 위치에 있는 첨단 기술 기업이다.

적외선 영상 온도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열 패턴을 감지해 낼 수 있다. TG165는 원거리에서 온도변화를 탐지할 수 있어, 측정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중 레이저포인터는 측정 대상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며, 십자선으로 열화상 부분을 지정해 준다. 또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



열화상 카메라 TG165

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장 구석구석에서 온도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다 TG165는 전자식 표시장치로 정확한 온도 측정은 물론이고, 측정 데이터를 따로 저장할 수 있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장 구석구석에서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온도변화가 감지되는 곳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어 사고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밖에 TG165는 사용법이 간편해 제품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도 별다른 교육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또 TG165는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계·제작돼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플리어시스템의 앤디 타이크(Andy Teich) 회장은 “TG165는 이미징 기능이 없는 현재의 적외선 온도계와 플리어의 첨단 기술인 열화상 카메라를 결합한 것이다”라며 “우리 회사의 랩톤 코어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가격과 사이즈, 낮은 전력 소비율 등을 바탕으로 하는 TG165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온도계를 열, 전기와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첨단 장비다”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TG165는 설비 정비기사, 건축기사, 전기기사, 공조기사, 건물 관리자 등에 필수적인 장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TG165는 10월 초부터 전 세계 T&M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제품 관련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www.flir.com/tg165](http://www.flir.com/tg165))를 참조하면 된다. ☺